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 사정 때문에 중간에 캠퍼스를 옮겼습니다. 처음에 갔던 캠퍼스는 수빅에서 가장 큰 마트 및 변화가에 차로 10~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기숙사는 3명이사 썼고 각 침대 하나씩 책상도 하나씩 있었고 화장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와 에어컨도 있었고 이불이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있고 각 층마다 수업하는 교실이 작은 방처럼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 캠퍼스(?)는 학교 사정 때문에 중간에 불가피하게 옮겼는데 콘도나 호텔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기숙사보다 침대도 좋고 에어컨도 좋고 화장실도 좋았지만 각자 1인당 책상이 방에 없고 와이파이도 안되어서 불편했습니다. 와이파이와 책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찾아가서 숙제하고 폰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방처럼 있었던 수업 교실은 중간에 이사를 하고나서 개방적인 아주 큰 방에 책상과 간이 벽이 설치된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p>
수업	<p>하루에 단어 2시간, 리딩 2시간, MMC(멀티미디어) 1시간, 토익스피킹 2시간, facetoface 1시간씩 8시간을 매일 수업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달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단어와 리딩은 1:1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데 수업준비도 잘 해주시고 대답을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셔서 단답이 아닌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좋았습니다. 단어집은 영국발음과 미국 발음을 같이 배웁니다. MMC수업에는 2주까지는 영상을 보고 감상을 조별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뮤직비디오나 광고를 만드는 시간을 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본 영어 시험으로 조를 나눠서 실력이 비슷하여 수업하는데 더 좋았고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은 아침8시부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지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p>
필드트립	<p>매주 토요일에 25명 다 함께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총 3개의 액티비티를 했는데 첫째주에는 화이트 코랄 리조트에서 수영하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수영장이었고 아침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취소가 될뻔 했지만 비가 중간에 멈춰서 가게 되었고 간단하게 맥주나 과자, 피자 등등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영복이 필요하고 여분의 속옷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액티</p>

	<p>비티는 nagwaling의 유적지 같은데에서 미션을 완수하고 사진도 찍고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셋째주에는 요트투어를 했습니다. 요트투어는 요트를 타고 점심도 주고 맥주도 줬습니다. 중간에 스팟에 도착하면 구명조끼를 주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빠지고 싶은 사람들만 빠져서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로 다이빙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경치가 예뻐서 가장 만족한 액티비티입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생각보다 덥지 않고 지금은 우기라서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그치고를 반복합니다. 선크림은 필수이고 우산도 필수였습니다. 비가 올때에는 번개가 아주 많이 쳤습니다.
안전	가기 전에 필리핀 총기사건이 있어서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갔는데 수빅은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고 차량도 통제가 되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트나 음식점을 가면 신기하게 보는 필리피노분들이 많았고 k-pop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숙소	기숙사는 3인 1실이며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10시, 수업이 없으면 12시에 점호를 하며 각 방마다 버디티쳐들이 다니며 인원체크를 합니다. 월,수,금요일에 빨래를 내놓으면 건조까지해서 가져다 주시고 월수금에 기숙사 청소도 해줍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식당은 한식이 주로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웠고 저녁에 외출 할때면 밖에서도 많이 사먹었습니다.
교통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 10분정도 뒤에 택시가 오고 하버포인트와 SM물입구에서 바로 택시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택시 정류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60만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밥값	20만원	
데이터 카드	12000원	
경비	5만원	
기념품	5만원	말린망고초콜릿
기타등등		
합계	6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바퀴벌레약은 꼭 사야합니다.

편한 옷을 많이 들고 가세요.

노트 챙겨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선생님들 선물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 실력과 토익 스피킹 실력은 확실히 느는 것 같습니다. 토익 스피킹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알게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선생님분들도 모두 좋으시고 아직 까지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방학이 끝나기 전에 토익스피킹 시험을 한번 볼 것입니다. 나중에 수빅이라는 곳에 또 가고 싶고 특히 다시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물가도 싸서 쇼핑도 많이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어학연수 덕분에 알찬 방학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mmc페스티벌이나 졸업식 등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끝까지 지루하지 않고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영어공부와 회화, 토익 스터디 실력이 늘고 싶다면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천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기숙사에서 바라본 전경



SM몰 근처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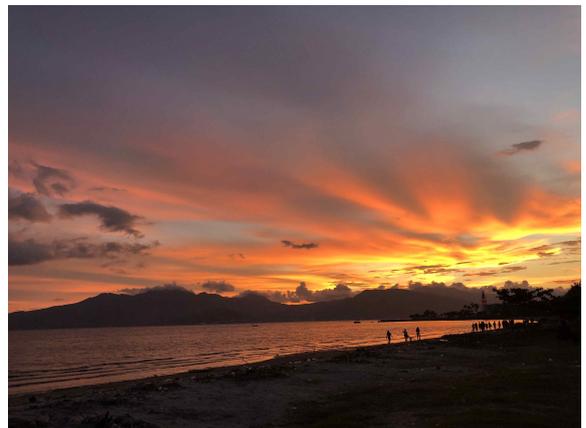
수빅베이



엑티비티-2



요트투어



수빅베이 노을